"광주 문화마을에 놀러 오세요"

광주에 작은 문화마을이 꾸려졌다. 동네 어귀에선 흥겨운 퓨전국악 연주가 들려오고, 길 모퉁이를 돌면 아카펠라가 발길을 붙잡는다. 한쪽에선 낯선 인도음악도 들려오고, 아름다운 발레 동작과 마임이스트의 움직임은 전혀 색다른 느낌을 전해준다.

다리가 아프면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도 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영화와 유명 작품의 공연 실황도 대형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

2008 광주 아시아공연예술제 30일 개막

옛 시립미술관서 연극 등 60여 작품 공연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광주 아시아공연예술제가 운영하는 '문화 빌리지'에서는 연극, 음악 등 60여개의 작은 공연들이 열린다. 사진은 광주 엔시안 요델 클럽.

오는 30일 개막하는 '2008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가 내년 1월 5~12일까지 옛 광주시립미술관(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문예회관 옆)을 '문화 빌리지-문화의 숲을 거닐다'(총괄 디렉터 규 랑)로 꾸미고 6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공연을 진행한다. 장르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대중예술, 영화 등 모든 문화 장르를 아우르고 있으며 마을을 산책하듯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 현장 곳곳을 둘러보면된다.

특히 다양한 문화장르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될 듯하다. 또 공연예술제 메인 프로그램인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소극장 공연 실황도 영상으로 촬영, 공연 다음날 다시 감상할 수 있다. 문화 빌리지는 오후 3시~7시까지 운영되며 공연은 4회씩 진행된다. 전편 무료 관람.

▲숲속 음악 여행

시립미술관 1층 전시실은 각종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숲속 음악 여행'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코너다. '클래식 음악 풍경'에는 에꼴드 플룻 앙상블, CNS금관 5중주단 등이 출연하며 '국악의 향기'에서는 해금, 가야금, 아쟁 연주와 신시악프로젝트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요델(광주엔시안 요델클럽), 인도음악(박양희) 등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연주하며 '나의 음악이야기'에서는 오카리나, 아카펠라, 포크음악 등을 만날 수 있다.

▲숲속을 거닐다

무용과 마임, 이미지극 등 몸짓의 언어를 만날 수 있는 섹션이다. 마임이스트 고재경씨의 마임, 푸른연극마을의 '여로', 각시탈의 인형극 '친구 친구 내친구', 극단 얼·아리의 연극 '투 맨쇼', 김광철의 '퍼포먼스 아트' 이미지극 '춤추는 도시에서 춤추는 지구로' 등이 공연된다.

또 발레 '카르멘'(오윤환·정정은), 컨템포러리 댄스(조소희) 등 다양한 무용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모던 재즈 댄스와 라인댄스 등을 직접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숲속의 영화 산책

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공간은 '영화'로 가득 채워진다. 이곳에서는 음악영화와 다양한 공연 작품을 대형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빈 신년음악회 하이라이트'를 시작으로 '파바로티, 카레라스, 도밍고 3테너 공연' '오페라 투란도트' 등 다양한 클래식 공연 영상과 '엘미라 마디간', '오페라의 유령', '파리넬리' 등 음악영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화 라운지

문화빌리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간단한 차를 나누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 카페'와 직접 제작한 맛있는 쿠키를 제공하는 '쿠키마을'도 운영한다. 또 문화빌리지를 찾은 관람객의 모습을 담아주는 '포토존'을 설치하며 문화빌리지를 비롯, 광주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는 메인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문의 062-528-92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9년 더욱 그리운 문인들

조태일·신동엽·기형도

〈10주기〉 〈40주기〉 〈20주기〉

추모 행사 다채

조태일

신동엽

기형도

"피어날 때 아픈 흔들림으로/피어 있을 때 다소곳한 몸짓으로/다만 웃고만 있을 뿐/꺾으려는 손들을 마구 어루만진다…" 조태일 시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中에서.

내년은 곡성 출신의 조태일, '껍데기는 가라'의 신동엽, '빈집'의 기형도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각각 10주기, 40주기, 20주기가 되는 해다. 2009년 문단에서는 이들 시인들을 위한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지난 1941년 곡성 태안사에서 태어난 조태일은 남성적인 저항의식과 생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노래한 시인이다. 진보적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전 민족문학작가회의)와 이 단체의 모태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만든 산파 역할을 했다.

또 '식칼론'(1970), '국토'(1975), '가거도'(1983),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1995년) 등 다수의 시집을 남겼다. 시전문지 '시인'을 창간해 김지하, 김준태, 양성우, 이도윤, 박남준 등 내로라하는 시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창작도 지원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참여해 4차례 구속되는 등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서다 지난 1999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서거 10주기를 맞는 2009년 문단 안팎에서는 그를 기리는 다양한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창비는 그의 전집을 내년에 출간하고, 한국작가회의도 추모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전 그가 교수로 재직했던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출신 문인들도 그의 생가인 곡성 태안사와 조태일 시문학관를 둘러보는 추모기행을 통해 그의 예술혼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신 동 엽 은 1969년 40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진달래 산천', '금강',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의 작품을 통해 치열한 시대의식을 표현한 시인이다.

신동엽 시인의 40주기를 맞아 그의 고향인 충남 부여에서는 그의 문학관이 건립된다. 부여군은 부여읍 동남리에 위치한 생가를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아 26억9천만원을 들여 연면적 162㎡ 규모의 신동엽 문학관을 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1975년 '신동엽 전집'을 출간한 창비는 내년 개정판을 출간하고 계간지를 통해 시인의 문학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기형도 시인이 스물아홉 해의 짧은 생을 마감한 지도 내년으로 꼭 20년이 된다. 기형도는 1985년 등단한 후 시작 활동을 채 꽃피우기도 전인 1989년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빈집', '입 속의 검은 잎', '안개' 등의 시가 수록된 유고시집 '잎 속의 검은 입'은 시인 지망생들의 교과서이다.

그의 10주기에 맞춰 '기형도 전집'을 간행했던 문학과지성사는 20주기를 앞두고 내년 초 기형도 기념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인시장 아트페어 대박 났어요"

관람객 '북적' 작품 판매 '날개'

호응 높아 전시 30일까지 연장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재래시장 아트페어인 '제로-베이스 액션 아트(Zero-base Action Art·이하 ZAA)'가 오는 30일까지 연장 전시된다.

지역 작가들의 모임인 '미나리'와 전남대 문화연구사업단 '공간+일상' (단장 천득염 건축학부 교수), 광주일보가 주최한 ZAA는 당초 25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관람객들로 부터 호응이 높아 오는 30일까지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인 재래시장을 훌륭한 미술 전시장으로 꾸민 ZAA에는 25일 현재 3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20여점의 작품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멀티미디어 작가 권승찬씨가 상인 20여명의 얼굴 사진과 이들의 새해 소망을 함께 플래카드에 담아 시장 곳곳에 설치한 작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 대학의 미술 학도들이 기획한 ZAA 부대행사인 '공감(空感·20~2009년1월28일)'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젊은 작가들의 톡톡 튀는 끼를 만끽하고 있다.

한편 ZAA는 진시영, 안희정, 조광섭씨 등 지역작가 120명이 참여해 600여 점의 작품을 시중가보다 20% 가량 싸게 판매하는 아트페어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중관씨 개인전 '거꾸로 보기'

31일까지 상계 갤러리

익살스런 도깨비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을 형상화하고 있는 수채화가 전중관씨가 오는 31일까지 광주 상계갤러리에서 '거꾸로 보기'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전씨는 밧줄, 병, 도깨비 등을 등장시켜 현대인의 모습을 희화한 신작을 선보인다.

전남대 미술교육과 출신으로 대한민국 현대미술 1000인전 등 다수의 전시회에 출품했다.

현재 황토회, 신형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광주시미술대전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문의 062-233-948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어-빠져나가다'

보길도 등 명승 8건 사진·동영상 자료 제작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신규로 지정된 명승 27건 중 보길도·윤선도 유적과 영광 법성포 숲정이 등 8건에 대해 사진·동영상 자료를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들 외에 경북 문경새재, 경북 봉화 청량산, 부산 오륙도, 강원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강원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서울 성락원 등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명승들이다 .

명승은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명승 제1호)지정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총 7건에 머물다가 2006년 이후 명승 지정 정책이 활성화됨에 따라 현재 모두 46건이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한국 명승을 영상으로 소개해 명승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면서 "한국 전통경관을 영상기록으로 구축해 명승 관리 및 보전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